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

사고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119와 환자를 신속히 연결해 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응급상황을 인식하고 환자를 도와주는 사람은 바로 주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따라 현장사람들은 신속, 정확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또한 무조건적인 피해자의 병원 이송이 아니라 위험지역의 환자를 접근 가능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고 현장에서의 피해자를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

1. 응급상황인지 아닌지 확인한다.

2.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아본다.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사람을 생각하는 자세,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능력, 응급상황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태도는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형성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 ◎ 먼저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야 한다.
- ◎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1339번으로 전화를 걸어 응급의료정보센터와 상담한다.
- ◎ 환자의 상태가 위급하다고 생각되면 119번으로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요청한다.

3. 구급차를 부른다.

응급상황 시 사람들은 당황한 나머지 구급차를 불러야 할 적절한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채 일반차량으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 환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4. 안전한 장소로 환자를 옮긴다.

5. 환자를 평가한다.

환자에 대한 평가는 먼저 생명이 위급한 상황인지를 파악하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즉시 결정하여야 한다.

6.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대부분의 생명구조 활동은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 응급조치를 취했을 경우에 효과가 크다.

즉 주위에 있는 사람의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가장 바람직하다.



증상별 응급처치

❶ 상처의 처치 - 냉찜질 ❶

타박상이나 뺨 곳은 차갑게 하면 붓기와 통증을 줄일 수 있다.

다친 부위를 흐르는 찬물에 대고 있거나 물 안에 담글 수 있다. 상처 부위가 머리나 가슴같이 다루기 힘든 부위이거나 장시간 냉각시켜야 하는 경우는 얼음 주머니나 냉습포를 이용한다.

❷ 얼음주머니 사용법

1. 비닐주머니에 절반이 넘을 정도로 얼음을 채운다. 주머니 끝을 묶고 수건 같은 천으로 싸든다.
2. 부상 부위에 얼음 주머니를 놓는다.
3. 20~30분간 상처부위를 냉찜질하고 얼음을 보충한다.

❸ 냉포습 대기

1. 수건이나 천을 찬물에 담갔다가 건져 찬 기운과 물기가 남아 있을 만큼만 짜내고 상처 부위에 갖다 댈다.
2. 같은 방법을 5분 동안 반복하여 냉기를 유지시킨다.

❶ 상처의 처치 - 붕대감기 ❶

붕대를 감는 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 드레싱을 제 자리에 고정시켜 출혈을 억제하며, 부상부위를 지지 고정시키고, 붓기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❷ 붕대감기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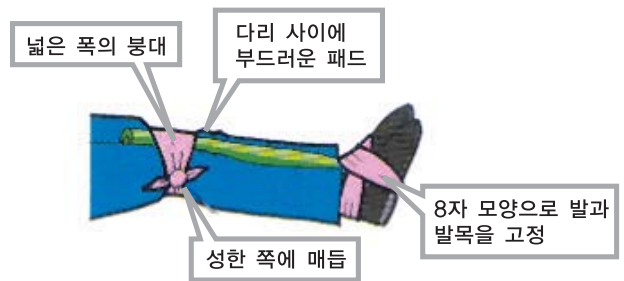
- ◎ 부상자에게 무엇을 하려는지 설명한다.
- ◎ 가능하면 앉거나 눕는 자세로 부상자를 편하게 한다.
- ◎ 항상 부상자 앞에, 가능하면 부상입은 쪽으로 서 있다.

❷ 붕대감을 때

- ◎ 출혈을 멈추고 드레싱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단단히 감아야 하나 혈액순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 다친 부위를 받쳐준다.
- ◎ 가능하면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붕대 끝으로 나오게 하며 혈액순환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한다.

❷ 다리고정을 위한 붕대 감기

다리 사이에 부드러운 패드를 대준다. 넓은 붕대로 무릎 위를 고정하고 좁은 폭의 붕대로는 발과 발목을 팔자 붕대로 하여 고정한다.



❷ 혈액순환상태를 식별하는 법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혈액순환 상태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신경, 근육 등이 같이 손상되었을 수도 있다.

- ◎ 손발의 피부가 차고 창백하다.
- ◎ 나중에는 피부가 거무스레한 회색이나 푸른색을 띤다.
- ◎ 저리거나 따끔거린다.
- ◎ 그 부위를 움직일 수 없다. 🚫

〈출처 : 중앙응급의료센터〉